

광주시·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

광주과기원·전남대 등 지역 6개 대학 공동 유치 활동 강화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 홍보관 운영... 실시간 1대1 상담 등

광주시가 지역 6개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22일부터 12월1일까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2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유학에 관심있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광주시와 지역대학을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유학박람회는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대학의 신규 유학생수 창출을 위해 온라

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외국인유학생 집중 유치를 목표로 문화, 관광, 유학하기 좋은 환경(기숙사, 교통, 안전 등) 지원시책 등을 적극 홍보한다.

또 이번 박람회에선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으로 선정된 전남대학교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6개 대학이 개별 홍보관을 운영하며, 실시간 온라인 유학상담 및 대학정보 제공 등 유학생 모집 및 상담 활동에 나선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중국, 베트남, 우즈베크 등 유학생 비중이 높은 국가를 타겟으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배너광고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선자 광주시 인재육성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지역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광주시의 우수한 정주여건과 지역대학의 매력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베트남 1940명, 중국 1835명, 우즈베크 470명 등 총 4943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VR로 보는 서구 8경 21일 광주 서구청에 마련된 VR체험부스에서 시민들이 풍암호수, 전평제, 금당산 등 서구 8경에 대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감상하고 있다. 만든 VR영상은 서구청의 평생교육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갯김치·배·굴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전남도 118개 선정...지역 대표성·형평성·매력도 등 평가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함께 여수갯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이 전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22개 시·군이 특산품 5개 품목씩 선정했다.

전남도는 2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후 즉시

전남도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선정을 추진했다.

답례품목 심사는 지역 대표성, 시군 간 형평성, 답례품의 매력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선정된 답례품 118개 품목은 전남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관광상품, 체험 상품으로 구성됐으며 선정된 답례품 목록은 전남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매력적인 답례품목 선정을 위해 사전에 답례품 발굴 조사,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답례품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모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품목을 발굴해 매력적인 답례품을 늘릴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 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든 수단 총동원 가뭄 대책 마련"

김영록 지사 상황보고회...용수 확보 공급 담화문 발표

김영록 전남지사는 심각한 가뭄에 대비해 예비비, 특별교부세, 2023년 본예산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강수량은 805mm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는 심각한 상황이다.

21일 오전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가뭄대책 상황보고회에서 김 지사는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모든 실적이 참여해 지역별,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되, 계수적 분석을 통해 정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뭄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물 절약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김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전라남도 가뭄대책본부'를 가동해 앞으로 매주 가뭄대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장기 가뭄 대응 용수 확보·공급 도민담화문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전남지역 주요 상수원인 주암·수어·평림댐 평균저수율이 35.1%로 '심각단계'이고, 농업용 저수지도 48.1%로 평년 대비 78.5%에 그치고 있다"며 "가뭄이 장기화되면 농작물 피해, 식수난 및 농업용수 부족 등 도민의 불편과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구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과 기업, 시군에서 물 절약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주요 실천사항은 ▲각 가정에서는 절수형 수도꼭지 부착, 수압밸브 조절 ▲골프장, 목욕탕과 수영장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에서는 물 아껴 쓰기 운동 적극 동참 ▲물 수요가 가장 많은 산업단지에서는 기업별로 냉각수 절감, 가동률 조정 등 자체 용수 절감계획 수립?시행 ▲발작물 재배 시 꼭 필요한 용수만 사용하고, 저수율 관리에 협조 ▲시군에서는 언론, 유인물, 마을 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 절약 홍보 등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가뭄이 심각한 완도와 신안에 병물 5만6000명을 공급하고, 급수차운반 등 응용수 가뭄대책을 지원했다. 또 관정개발, 배수로 준설 등 농업용수개발비 27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예비비 100억원을 들여 도서, 산간, 농촌 등 취약지역에 대형관정 개발, 해수담수화, 병물 공급 등을 지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위기의 지방' 상생·균형발전 모색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1명 협의회...시·군별 현안 공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구 감소에 내몰린 전남의 상생·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모색했다.

21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8일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11곳의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상생발전 방안과 지역현안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군별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문제의식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정훈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민주당 소속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전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개발을 선도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의 국비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전남형기본소득 실현,지역화폐 활성화, 쌀값 정상화와 사료작물 재배 등 쌀 생산조정 정책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키로 했다.

또 합리적 농지 사용을 저해하는 농지법 개정과 영농형태양광 추진 검토, 공사·폐가 정비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정책협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당·정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친환경 한우 홍콩 수출길 재개

나주축산물공판장, 수출 전문 도축장 재등록

최근 농협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이 전남 1호로 홍콩 정부로부터 한우고기 수출 전문 도축장으로 재등록돼 전남의 친환경 명품 한우의 홍콩 수출길이 재개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우고기 수출도축장이 본격 재가동됨에 따라 도내 한우 광역명품 브랜드인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을 1차로 한우 25마리 분량을 도축해 1++ 채플 200kg을 12월 중 홍콩에 수출하기로 현지 업체와 계약했다.

1일 도축 가능 물량은 소 150마리, 돼지 1천200마리 규모이며, 소 100마리, 돼지 800마리를 가공

할 수 있다.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은 2016년 4월 홍콩으로부터 도축장 등록을 받았으나, 신축 이전으로 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시 승인을 받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으나, 코로나19 등 홍콩 현지 사정 등으로 약 1년여 기간이 소요돼 지난 7일 등록됐다.

전남도는 안정적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전남산 한우고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산 한우고기 수출협의회를 지난 15일 개최하고 한우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